

甲状腺癌환자의 日常生活

김등 해조류는 갑상선질환의 경과에 영향없어

붙임이 되기도 하지만 이는 치료하면 정상으로 회복되고 임신이 가능해진다. 그외의 다른 갑상선 질환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된다.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을 절제한 경우라도 수술후 평생동안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므로 갑상선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시킬 수 있어 임신에 전혀 지장이 없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 요오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치료후 1년 이후에는 임신에 지장이 없다. 방사성동위원소가 유전적 영향을 미치지 않나 걱정을 하는데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유전적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출산을 마칠 때까지 방사성동위원소 요오드 치료는 미루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환자는 30대 이후에 발병하므로 실제 임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갑상선 호르몬 제제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은?

갑상선기능저하증, 만성 갑상선염, 갑상선 양성결절, 갑상선

절으로 배설되므로 부약중에는 가능한한 수유는 금하는 것이 좋다. 비록 젖을 통하여 아기한테 넘어가는 약의 분량이 적을지라도 아기에게는 불필요한 약제를 투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4. 갑상선암과 식이요법

갑상선암 환자에 필요한 특별한 식이요법은 없다. 특별히 금해야 할 음식이 있거나 병을 고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며 시중에 떠도는 민간요법은 갑상선암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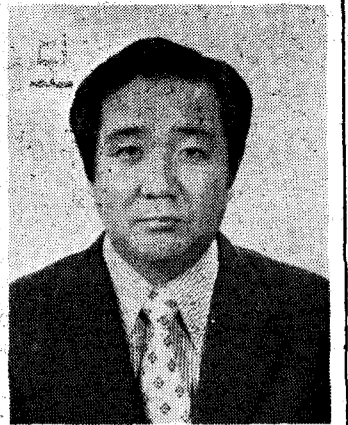
5. 갑상선과 해조류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고 있는 김이나 미역등의 해조류에는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인 요오드가 다량 들어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김이나 미역을 많이 먹는 것이 갑상선 질환에 좋은지 또는 나쁜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중에는

나 미역 등 해조류를 즐겨 먹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요오드의 결핍뿐만 아니라 요오드의 과잉 섭취도 갑상선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 일본 후가이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해조류의 과다한 섭취로 인해서 갑상선이 커진 예들이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음식물내에 들어 있는 요오드의 양만으로 갑상선에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주로 요오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는 약제들을 복용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계적으로 요오드 섭취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들 수 있다. 실제 우리가 먹고 있는 요오드의 양은 미국이나 유럽인들의 섭취량보다 몇배 많다. 그러나 갑상선 환자의 발생 빈도나 병의 양상으로 보면 서양과 차이가 없다. 또한 치료에 대한 성적도 서양인과 차이가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정도의 요오드 섭취는 갑상선 기능과 갑상선 질환의 경과에 영향을 없음을 의미한다. 설사 과량의 요오드를 섭취하더라도 우리 몸은 이에



고 창 순
(서울의대 내과교수)

갑상선제나 갑상선 호르몬 제제들은 다른 질환의 치료제들과 같이 복용해도 무방하다. 갑상선질환으로 치료하고 있던 환자가 다른 병이 생겨, 예를 들면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을 복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갑상선 약 복용을

갑상선호르몬 製劑들은 胎兒에 영향없어 甲状腺질환 치료중 다른 藥劑 복용가능

술은 갑상선기능 항진증의 증세를 악화

암 등의 환자에서는 갑상선 호르몬 제제를 장기간 부여하게 되는데 갑상선 호르몬 제제들은 태아한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복용해도 된다.

갑상선 호르몬은 태반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산모가 복용해도 태아에게로 건너가지 못해서 태아의 갑상선에 전혀 영향이 없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이 기형을 유발하거나 태아의 발육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갑상선 호르몬의 복용을 중단할 때 산모에게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더 위험하다.

3. 수유는 무방한가?

수유 자체는 갑상선의 기능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갑상선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들이

먹는 정도의 김이나 미역은 갑상선 기능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상선 질환의 경과에도 별 영향이 없으므로 일상 본인의 습관대로 먹어도 상관 없다.

요오드 섭취가 불충분하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의 원료가 부족하게 되어 갑상선이 커지고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요오드 결핍 지역인 동남아의 태국, 인도네시아와 유럽의 스위스 산간지역, 남아메리카의 산간지역, 중국의 내륙 등에서 많이 관찰되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없다. 과거의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북의 산간지방에 요오드 결핍에 의한 갑상선 질환이 있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관이 김이

적응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따라서 미역이나 김을 더 많이 먹음으로써 피해야 할 이유도 없다. 본인의 습관대로 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다.

6. 갑상선과 술, 담배

술과 담배는 그 자체가 건강에 해로우므로 가급적 금하는 것이 좋으나 갑상선 질환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술이나 담배가 갑상선 기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술은 갑상선기능 항진증의 증세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갑상선질환의 치료도 중 다른 약제의 복용

갑상선질환의 치료제인 항갑

일시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항갑상선제나 갑상선 호르몬 제제들은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고 다른 약제의 약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같이 복용해도 무방하다. 갑상선 이외의 다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갑상선 약을 중단하면 갑상선 기능장애가 교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질환의 치료가 잘 안될 우려가 더 크다. 따라서 다른 병이 발생한 경우 일수록 갑상선질환의 치료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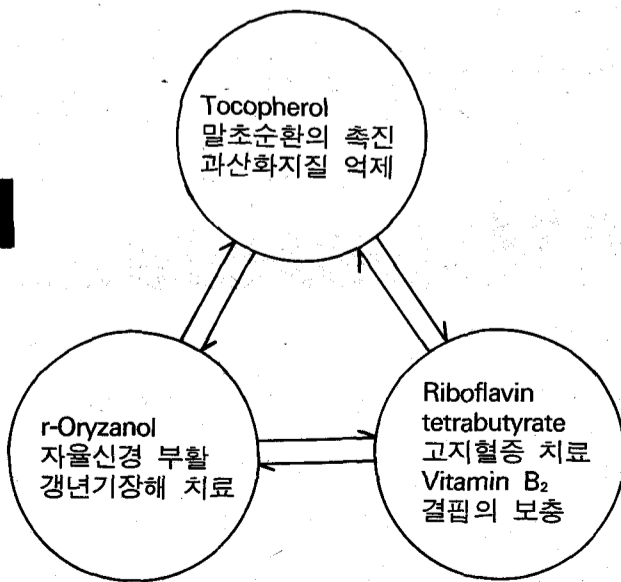
1. 갑상선암 환자에서 임신이 가능한가?

많은 사람들이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앓은 적이 있으면 붙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이나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심한 경우에는 월경 불순과 배란 장애로 인하여 일시

대시성 혈행 개선제 엘더론 ELDERON Soft Capsule.

적응증

- 성인병의 예방
- 고지혈증, 비만증, 동맥경화증
- 수족냉증, 두통, 두 증
- 갱년기견비통, 피로 회복



약리 작용

1. 엘더론은 말초혈관의 혈행을 촉진시켜서 동맥경화등 성인병을 예방·치료해줍니다.
2. 엘더론은 지질대사를 개선시켜서 과산화지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비만증을 예방합니다.
3. 엘더론은 자율신경실조증을 원인으로 치료하여 두통, 두증, 불면증을 해소시켜 줍니다.
4. 엘더론은 내분비계의 이상을 정상화시켜서 젊음을 유지시켜 줍니다.
5. 엘더론은 갱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증상을 개선시켜 남성에게는 활력을 여성에게는 아름다움을 되찾게 합니다.



한유약품

TEL. 249-5001~4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02